

"차량 5부제 강화"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적극 동참

사전 5부제에 2부제 상황도 대비...대중교통 찾고 카풀 구하고

환경단체 "보여주기식 조치"...국민행동요령에 "실생활과 거리" 비판도

정부가 24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방침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 제한한다.

충남도는 이날 청사 에너지절약 협조 공문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충남도청 청사관리팀은 전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근거리 차량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퇴근·점심 시간대 모니터와 조명 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은 평일

50%, 휴일은 70%를 끄겠다고 공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23일부터 선제적으로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안보 자원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된다.

5부제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을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주도는 공공·유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직자들의 출근수비를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축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도 5부제를 비롯한 직원 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직원에게는 폐널티를 주고 있다"고 했고, 연수구 관계자도 "차량 5부제보다 강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2부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5부제와 함께 엘리

베이터 격층 운행, 점심시간 일괄 소등, 지하 주차장 조명 50% 소등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5부제 강화가 알려지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전남도의 한 직원은 "내일부터 5부제가 강화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당분간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 길이 비슷한 동료들과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27일부터 5부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사 출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2단계로 지역 내 전체 공공기관과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심화 시에는 차량 2부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차량 5부제 강화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차량 5부제를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름값이 비싸지면 차량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차량 5부제 같은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든 인근에 주차해 놓고 조금 걸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에너지가 더 악화한다면 승용차 5부제는 민간에게도 의무화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원 기자

LG유플러스, 이사회 의장에 남형두 사외이사 선임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 통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건제와 균형' 실현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직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음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형두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앞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내부부채 강화에 기여해 왔다.

LG유플러스는 남 이사가 보유한 법률적 전문성과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반

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 DJSI, MSCI 등은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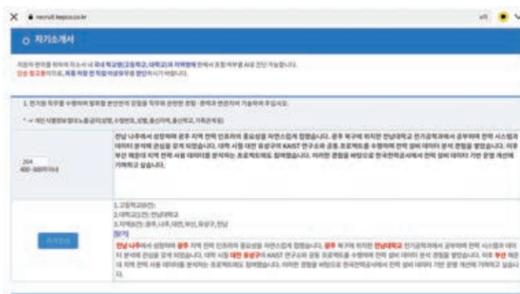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이번 선임을 통해 평가 지표 준수 현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거버넌스 모델을 입증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형두 사외이사는 법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윤리성과 거버넌스 이해도를 갖춘 책임자"라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AI 자기소개서 자가 진단' 및 '자격증 자동 연계' 시스템

블라인드 위반 사전 예방과 네이버 자격증 연계로 편의성·공정성 제고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채용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AI 자가 진단과 네이버 인증 기반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를 채용 시스템에 전격 도입한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명, 학교명 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여부를 지원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AI 자가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금지어 진단 결과를 면접관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으나, 이제는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서류 탈락 등 지원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한전은, 네이버와 협업하여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를 채용 시스템에 연계한다. 지원자

가 자격증 번호, 취득일 등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본인의 인증만으로 취득 정보를 자동 저장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기관 약 2,700여개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들이고서 오기 전에 인한 결격 사유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채용 지원자의 접수는 3월 27일(금) 오전 11시까지 한전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의 단순 실수를 예방하고, 채용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원자를 배려할 채용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동원그룹, 글로벌 6위 해운사 ONE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 ONE 유치로 물동량 2배 이상 확대 기대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 생산성·정시성·안전성 높여



동원그룹이 글로벌 6위 해운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 이하 ONE)'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DGT는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원그룹 자회사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ongwon Global Terminal Busan, 이하 DGT)은

2024년 부산신항에 개장한 스마트항만 터미널의 운영사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DGT는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ONE는 부산신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DGT는 ONE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존의 2배 이상

의 물동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DGT가 운영 중인 2-5단계 항만 외에도 피더 부두와 2-6단계가 완공되면, 현재 대비 3배 이상의 추가 물동량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DGT는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ONE를 전략적 파트너사로 유치함으로써, DGT 항만 인프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DGT는 컨테이너 하역부터 장치장에 옮겨 쌓는 이송, 적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100% 무인 자동화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자동화 터미널운영시스템(TOS)과 최신 무인인송장비(AGV), 컨테이너 레인(STS) 등을 도입해 유인 항만 대비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시켰고 정시성과 안전성도 개선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ON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신항의 물동량 확대와 환적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인 DGT의 사업성 확보와 조기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현대백화점, 온라인판 더현대 서울 '더현대 하이(Hi)'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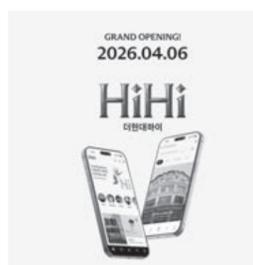
검색과 비교 대신 '발견', '선택' 중심의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기존 e커머스 공식 타파"

공간 혁신과 과격적 콘텐츠를 더현대 서울에 도입해 기존 오프라인 유통의 틀을 깬 현대백화점이 이번엔 프리미엄 e커머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방대한 상품군과 활인을 앞세워 검색과 비교가 필수인 기존 e커머스와 다르게, '발견'과 '선택'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백화점 고객들의 니즈에 집중한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통해 디지털 럭셔리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상품 구성 역시 '큐레이션'에 방점을 찍었다.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쉽게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형 무한 확장 구조와 달리, 더현대 하이(Hi)는 현대백화점 비어가 직접 검증한 3000여 브랜드



만 선별해 입점시켰다. RRL 등 주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자사몰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문관 형태로 운영된다.

프리미엄 유럽 식료품 400여 상품도 아시아 최초로 입점시켜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현대식품관'의 다양한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에이프(Aape)'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김해김(KIMHĒKIM)' 등의 전문관도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모델 홍태준과 인플루언서 배지연, 작가 이슬아 등 각 분야에서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별한 크리에이터들의 가치관을 담은 '아이콘샵(ICON SHOP)'을 통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본인 취향에 맞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은 물론, 관련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더현대 하이(Hi)는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콘텐츠에 기반한 발견형 쇼핑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준에 고객이 수 만개의 상품

속 가격과 세부 사양 등을 비교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목적형 쇼핑 대신,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확신해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디지털 공간에서도 현대백화점만의 신뢰와 품격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고객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미스페이스(Me Space)'도 마련해 고객이 직접 큐레이션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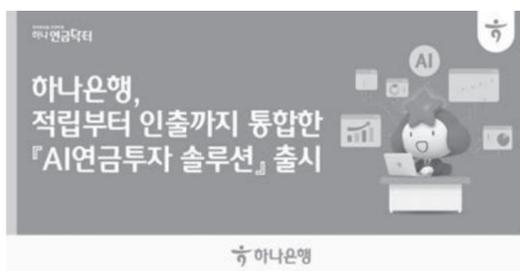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을 통해 오프라인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했듯이 더현대 하이(Hi)를 통해 디지털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현대백화점이 축적해온 본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현대 하이(Hi)에 이식해 미래형 프리미엄 e커머스의 대표 모델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NEW 하나원큐 통해 'AI연금투자 솔루션' 통합 서비스 제공

AI가 투자성향과 보유자산 진단 후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및 연금 인출·운용 전략 제안

인출기 솔루션,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목표를 분석 1000여개 이상 포트폴리오 조합 생성



하나은행은 새로워진 NEW 하나원큐를 통해 연금 자산의 적립·인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AI연금투자 솔루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AI연금투자 솔루션'은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종합 연금 투자 관리 서비스로, 손님이 설정한 연금관리 목표를 반영해 AI가 투자성향과 보유자산을 진단하고,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와 연금 인출·운용 전략을 동시에 제공한다.

'AI연금투자 솔루션'은 '적립기 솔루션'과 '인출기 솔루션'

으로 구성된다. DC·IRP 손님이 '적립기 솔루션'을 통해 ▲은퇴시점 ▲목표 연금자산 ▲적립금액 등을 입력하면, AI가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5개 자산으로 구성된 연금 적립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목표 관리 컨설팅을 수행한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개인형 IRP 손님은 '인출기 솔루션'을 통해 연금수령 단계의 투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손님이 연금 수령의 주기·기간·금액 등을 목표로 설정하면 AI가 펀드·ETF·예금 등 6개 자산으로 구성된 연금 인출 포트폴리

오를 제시한다. 특히, '인출기 솔루션'은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목표를 분석하여 1,000여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조합을 생성하며, 포트폴리오 내 투자상품 후보군은 시장환경에 따라 매일 업데이트 된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손님의 연금 자산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닌, 생애주기와 연금관리 목표를 반영한 운용 솔루션으로 확장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인출기' 손님의 연금관리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AI연금투자 솔루션'은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AI 기반 연금관리 서비스로, 기존 연금투자 적립기 서비스와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시한 AI연금투자 인출기 서비스를 하나의 비대면 서비스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승원 기자